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여수시장 후보가 교통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 <서영학 후보 측 제공>



조국혁신당 명창환 여수시장 후보가 교통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명창환 후보 측 제공>



무소속 원용규 여수시장 후보가 생룡사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원용규 후보 측 제공>



무소속 김창주 여수시장 후보가 시민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창주 후보 측 제공>

민주당 vs 혁신당 '진검승부'...무소속도 '다크호스'

6·3 지방선거 격전지 D-14

<4>여수시장

서영학 "젊은 추진력 지역 역량 결집"

명창환 "연습 필요 없는 행정 전문가"

원용규 "비전·책임감·실천력 변화 견인"

김창주 "경영전문가 여수대전환 현실로"

여수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구도에 무소속 후보들까지 가세해 4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단 한 번도 재선 시장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여수는 후보의 경쟁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최대 관심사는 현직인 정기명 시장을 꺾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서영학 후보와 여수시장 선거를 핵심 승부처로 설정하고 당락을 집중하고 있는 혁신당의 명창환 후보 간 대결 구도다. 또한 3파(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이후 치러진 7번의 여수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이 3번이나 당선된 만큼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수 남산동에서 태어나 여수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입학 과정을 졸업한 민주당 서영학 후보는 제9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했다. 서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국립재활원 여수분원 유치 ▲여수미래랜드 1천억원 조성 ▲서울-여수 2시간대 고속철도 건설 ▲여수공항 국제선 취항 확대 ▲미래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여수전역 관광벨트 완성 등을 제시했다. 서영학 후보는 "젊은 추진력으로 인구 감소와 산단 침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여수의 정체된 행정을 깨우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며 "여수를 아시아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당은 명창환 후보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하고 세

장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고흥 출신인 명 후보는 순천고등학교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1회 지방고시에 합격, 공직을 시작했다. 특히 순천시 부시장,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명 후보는 기초·광역·중앙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을 토대로 여수가 직면한 산단 쇠퇴, 관광 침체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공약은 ▲미래첨단산업 다극화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육성 ▲여수박람회장 K-컬처 중심 글로벌 관광거점 재건 ▲시내버스 출퇴근 무료화 ▲청년 만원주택 500호 확대 ▲학생 교육기부수당 중고생 확대 등 시민체감형 정책이다. 명창환 후보는 "산업·관광·민생이 모두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여수를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을 모두 경험한 30년 행정 전문가 명창환이 연습 없이 첫날부터 바로 일하는 시장으로 무너지는 여수를 다시 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후보들 또한 정책 경쟁력을 발판 삼아 표발을 다지고 있다.

여수시의원을 지낸 원용규 후보는 '침체된 여수 경제 회복'을 자신하고 있다. 원 후보의 핵심 공약은 ▲여수국가산단 침체·위기 극복 ▲관광산업 활성화 ▲SOC 확충 및 생활 공공인프라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청년 인구 유출 해결 등이다. 원용규 후보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목표와 비전, 책임감, 실천력의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여수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여수경영인협회장을 지낸 김창주(우후엔택 대표이사) 후보는 전문경영인 이력을 기반으로 여수 변화를 이끌겠다고 나서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첨단정밀화학산단 신설 및 산단 재생 ▲선소 해상공원장 조성 ▲연등천 복원 ▲해안 순환 노선 Y-트램 구축 ▲남산공원 K-POP 공연장 조성 ▲국제학교 유치 등 공약을 내놓았다. 김창주 후보는 "지금 여수에는 서류를 검토하는 시장이 아닌 운동화 끈을 매고 현장을 누비는 경영자가 필요하다"며 "여수의 대전환을 경영 전문가 김창주가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여수=김진선 기자

민형배 "목포-강릉 잇는 강호축 완성"

환승없는 목포-광주승정-강릉 KTX "대한민국 X축 구축 새 성장축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9일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 발표를 통해 "목포와 광주, 충청과 강원을 잇는 대한민국 국토의 대각선 축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위한 X축, 강호축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합동 공약 발표에는 정청래 당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민형배 후보,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자,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부축 중심 철도망에 강호축을 차질 없이 완성해 목포-광주승정-강릉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합동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공사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31년부터 KTX-이음 고속열차를 투입해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 민 후보는 기존 철도망이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된 점을 지



적하며 강호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광주에서 서울은 가깝지만 강원은 너무 멀어 대중교통도 사실상 고속버스 한 편이고 이동 시간이 다섯 시간 넘게 잡아 한다"며 "그동안 국토의 길이 서울을 향해 세로로만 뻗어 있어 사람과 물류, 기회가 모두 서울로만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토의 대각선 축인 강호축을 세워 방향을 바꿀 때"라며 "환승 없이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오기며 관계가 생기고 물류, 산업, 관광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강호축의 꿈을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 지방정부가 완성하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중앙당의 확실한 뒷받침, 후보들의 실행력이 하나로 모일 때 국토의 지도는 빠르고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그릇이며 강호축은 그 그릇을 전국과 연결하는 대동맥"이라며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을 강호축 위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혁신 배수진 "무투표 당선 후보자 검증 실종"...탈민주 호소

조국혁신당 배수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결과를 규탄했다. 배 후보는 "전국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자 3명 중 2명이 광주지역 후보"라며 "이 밖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34명, 광주 기초의원 6명, 전남 기초의원 1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 간 경쟁이 없으면 후보자의 행정, 능력, 인성, 비전·공약 검증도 실종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는 또 "무투표 당선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와 대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당선자에게는 지



역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후보는 "광주·전남에서는 일당 독점을, 전국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이라는 '독점 정치'를 야기시킨다"며 "독점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친다. 바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나타내진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태해진 호남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광주·전남 국회 1석 탈민주당으로 독점의 정치에 경쟁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 기자